

애착유형에 따른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인성문제 간의 구조분석*

조민규¹⁾ 김춘경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영유아교사가 지각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이 예비교사의 외현화 및 내재화 인성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애착유형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예비영유아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인성문제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는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공감능력의 효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형 애착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불안정애착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비해 외현화 인성문제를 더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애착유형,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인성문제, 다집단분석

I. 서론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2일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에서 인성 및 대면교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15S1A5A2A01011793)

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육을 강화한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이러한 정책은 지난 해 1월 아동학대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14일 4살 원아의 앞니를 부러뜨린 보육교사 사건(중앙일보, 2015.12.14) 등 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난 후, 정부에서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인성적 자질은 교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갖춰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교사의 인성문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 교사들의 인성의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성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행동특성이면서 사회 속에서 발휘되는 관계적 능력과 관련이 깊은데,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 안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Lee, Han & Choi, 2008). 인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되고 통제하는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Wright et al., 2012). 사람들의 인성을 5가지 요인으로 측정된 Costa와 McCrae(1992)는 5 가지 요인 중 불안 및 공격성, 우울, 충동성, 반사회성과 같은 임상적 성격특성을 포함한 신경증 요인에 문제가 있으면 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안현의·안창규, 2015).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성문제는 인간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성문제를 신경증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동학대(Kuo, Khoury, Metcalfe, Fitzpatrick & Goodwill, 2015)를 비롯한 유아의 대인관계 능력(Lazarus, Cheavens, Festa & Rosenthal, 2014), 심리적 불안정성(Gratz et al., 2014),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Downey & Coyne, 1990)는 성인의 인성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경증적 차원의 문제를 인성문제로 보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성발달은 생애발달에 있어 모든 시기에 중요한 과제이나, 특히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은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명숙, 2015). Berkowitz와 Grych(1998)는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부모의 인성보다 교사의 인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영유아들은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 가정보다는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영유아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발달특성

상 모방능력이 뛰어난 유아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인성을 형성해 가는데, 교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유아는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이명신·권충훈, 2010). 교사의 신념 및 인성의 문제가 유아들의 부정적 인성형성에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Brown, Cohen, Johnson & Smailes, 1999)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전재선, 2011), 유아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시켜주기 위해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김용조, 2001). 교사의 인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과 더불어 미래 사회의 인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예비영유아교사 시기의 인성적 특성은 교사가 된 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에서 예비영유아교사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Minor, Onwuegbuzie, Witcher & James, 2002). 유아들이 교사의 인성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아교사의 애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명희·박혜경, 2014). 유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지각하며,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한 내적작동모델을 실행하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자신이 가치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며, 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마지못해 자신들에게 가까이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차지연, 2013; 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회피형 애착유형들은 스스로 냉담하고 회의적이라 생각하며,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도 의지할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 대인관계에 대한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불안형 및 회피형의 사람들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타인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Wiltgen, Arbona, Frankel & Frueh, 2015). Riggs 등(2007)은 인성(Personality) 문제가 애착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MANOVA)를 보이는지 살펴봐왔는데,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우울, 회피, 경계선, 불안,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등의 인성문제에서 불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타인과 어떤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따라 인성문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안정애착을 가진 경우 인성문제 관련 요인들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인성연구에서 애착유형은 선행되어

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또한 애착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경아·김봉환, 2010). 공감능력은 부모, 자녀관계로부터 대인관계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성일, 1998).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공감능력은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성인이 어떤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따라 공감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윤선아, 2010). 공감능력은 유아기의 애착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이수현과 김동민·서영석(2006)의 연구에서처럼 애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영유아의 올바른 안정애착 형성에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애착유형은 자기효능감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Eden & Aviram, 1993).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아존중감(김미현·김명식, 2013), 자기효능감(Mikulincer, 1998;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파악 이전에 애착유형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안정애착은 교사와의 안정애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교사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인성문제에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 교사의 애착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인성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원인변수로는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Hornblow, Kidson & Ironside, 1988). 인성문제를 지닌 교사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공감능력이 있다(김인형, 2015). 공감능력은 내재화 인성문제에 해당하는 성인의 우울증상(Lee, 2009)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Prehn-Kristensen et al., 2009), 공격성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인성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Miller & Eisenberg, 1988) 공감능력은 인성문제에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도 인성문제의 원인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ed, 1991). 자기

효능감은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해당하는 우울 및 불안, 신체화 및 적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박효정·김미영·정덕유, 2008; Maciejewski, Prigerson & Mazure, 2000; Meredith, Strong & Feeney, 2006) 자기효능감 요인도 인성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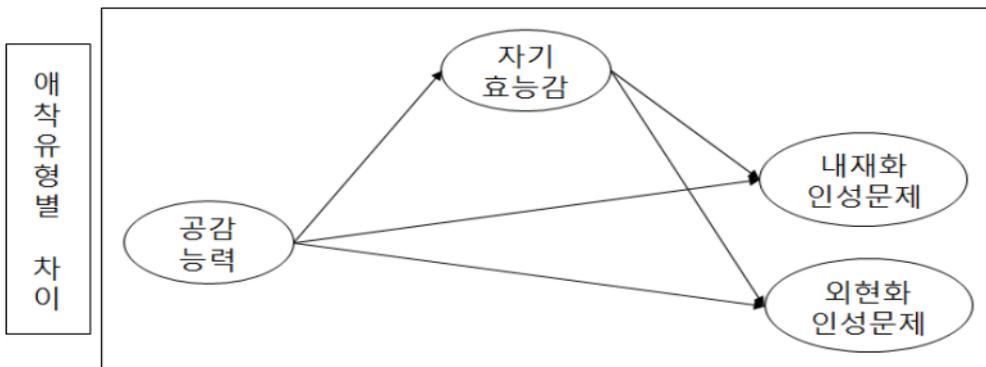
공감능력은 인성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변수임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설명하기 위한 원인변인이기도 하다(Kokkinos & Kipritsi, 2012).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공감수준이 높아지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정서적 공감능력은 사회적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최영민·박재국·김혜리 2013). 이렇듯 공감능력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은 교사자신의 인성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써의 자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애착유형 별 예비영유아교사들의 인성문제와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인성문제는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영유아교사의 인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원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 집단차이 및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동일한 변인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t -검증, 변량분석 등의 방법과는 달리 각 변인의 측정오차를 고려하는 장점을 가진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욱 객관적일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잠재평균분석이 집단 간 잠재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알아보는 데 반해, 집단 간 비교(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 기법이다(Byrne, 2001).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 모형에서 각 집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 검증하며, 집단 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Byrne, 200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잠재평균분석 결과는 기존의 평균비교 연구의 결과보다 더욱 객관적이며, 이러한 평균분석 결과를 토대로 AMOS를 활용한 집단차이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교사 인성문제의 요인을 찾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

면 집단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불안정애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미래에 영유아를 담당할 예비영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지닌다. 넷째, 예비영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인성문제의 경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사회성 및 충동성과 같은 외현화 인성문제의 경우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순민(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인성문제 관련 연구에서는 외현화 및 내재화로 분류가 선행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성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간 애착유형별 차이는 어떠한가?
2.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간 애착유형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NU 2015-62)을 받은 후, 예비영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학과 학과장 및 교수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대상에 한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은 1,000명으로, 대구·경북 소재 3년제와 4년제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예비영유아교사들이다. 연구대상을 애착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안정형 애착 500명(50.0%), 거부형애착 99명(9.9%), 몰두형 애착 266명(26.6%), 두려움형 애착 135명(13.5%)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년(1-4학년)에 따른 애착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7.85($df = 9, p < .50$)로 학년에 따라 애착유형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애착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유의수준 .05), χ^2 통계값은 6.37($df = 3, p < .05$)로 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따라 애착유형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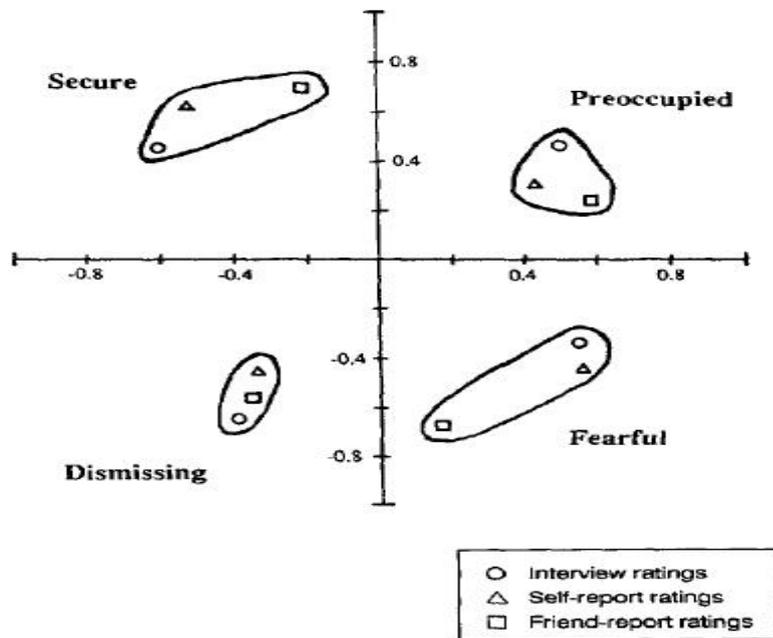
2. 측정도구

가. 성인애착유형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Bartholomew와 Horewiz(1991)의 애착유형 척도를 김광은(2004)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개개인의 인터뷰(interview)와 자기보고(self-report), 타인보고(Friend-report) 평가기준점수를 요인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자기상과 타인상의 두 수준을 조합하여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관계 질문지이다.

본 척도에서 설명하는 애착유형은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 형으로써 안정형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가능하고 반응적이라 기대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몰두형은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형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지각하는

유형이며, 두려움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가치감과 기대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척도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두려움형의 애착 양식을 설명하는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서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본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한 유형에 따라 자신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그림 2] 애착유형 분류(Bartholomew & Horowitz, 1991)

각 요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Secure)과 두려움형(Fearful)은 $r(75) = -.55, p < .001$, 몰두형(Preoccupied)과 거부형(Dismissing)은 $r(75) = -.50, p < .001$ 로 변인들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근접한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유형분류로 인하여 척도가 명목화 되었으므로, 명목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능력 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하고 박성희(1994)가 변안한 대인관계반응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28문항이다. 하위요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경우 관점취하기 및 상상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공감의 경우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자신의 공감능력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 보통이다(3점), 전혀 아니다(1점)로 평가하게 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 결과 전체신뢰도는 .8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80, .75로 나타났다.

다.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Paulhus(1983)가 개발한 것으로 송원영(1998)이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측면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19문항이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자신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 보통이다(3점), 전혀 아니다(1점)으로 평가하게 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 전체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송원영, 1998; Paulhus & Christie, 1981)에서는 .65~.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1, .67로 나타났다.

라. 인성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Costa와 McCrae(1992)가 제작하고 안현의와 안창규(2015)가 표준화 한 NEO-II 인성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이중 불안, 공격성, 반사회적 위축 등 인성문제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증 요인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과 우울, 사회적 위축, 외현화 문제에는 충동성과 반사회성을 포함시켰다.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는 표준화과정을 통해 변환된 T점수를 활용하였다. 신경증 요인의 경우 정서적인 반응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45점에서 55점의 경우 보통 수준을 의미하여, 55점 이상의 경우 높은 수준, 45점 이하의 경우 낮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성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의 점수가 낮은 경우 편안하고 침착한/걱정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불안의 점수가 높을 경우 초조하고 민

감한/걱정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통계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예비영유아교사의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대해 [그림 1]과 같은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3년제와 4년제 대학생이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여 명목척도 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F 검증 및 scheffe를 활용하여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애착유형을 집단 간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AMOS를 활용하여 애착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주요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주요 변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가설 모형을 전체 집단을 상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해 검증해 본 뒤, 모형의 구조적 동일성 즉 변인간의 인과관계 패턴이 애착유형에 따라 영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애착유형에 따른 구인 동일성 검증

애착유형에 따라 인성문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인 간 유형차이를 비교하기 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이 어떤 애착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각 변인에 대해 scheffe를 활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성태제, 2007). 분석결과 거부형 및 두려움형, 몰두형이 동일집단으로 나타나 집단을 안정애착집단과 불안정애착집단 2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애착유형의 경우 자기모델(의존) 및 타인모델(회피)의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유형의 경우 자기모델(의존) 혹은 타인모델(회피)에서 하나 이상의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Bartholomew와 Horewiz(1991)의 연구 보고에서처럼 애착유형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표본의 크

기는 관측변수가 12개 미만인 경우 최소 표본의 크기가 200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 (Jreskog & Sorbom, 1989)에서 200명이 되지 않는 거부형애착(99명)과 두려움형애착(135명)을 몰두형과 더불어 불안정애착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안정애착(500명)과 불안정애착(500명)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였다.

F검증을 활용한 변인 간 집단 간 차이검증은 평균차이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긴 하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오차로 인하여 결과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하지만,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집단 차이검증의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방법론 학자들은 잠재평균분석을 훨씬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Aiken, Stein, & Bentler, 1994; Cole, Maxwell, Arvey & Salsa,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F검증이 아닌 AMOS를 활용하여 변인 간 집단 간 차이검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동일한 변인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한 장점을 가진 통계방법이나 이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Hong et al., 2003).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른 예비영유아교사의 변인들 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변인에 대해 비교하였다.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는 그 값이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당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는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표 1〉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 동일성	127.234	42	.950	.971	.045
모형2: 측정동일성	170.461	47	.935	.957	.051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399.425	56	.911	.925	.078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447.326	60	.905	.916	.080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내재화, 외현화 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애착유형 집단에서 비교하였다. <표 1>의 결과에서처럼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기저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재치를 애착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 2 역시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므로($\Delta\chi^2(5, N = 1,000) = 43.227, p <$

.005),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와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측정동일성을 가한 모델이 형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에 비해 지수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일성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 외, 2009). 따라서, 모형 2의 측정동일성모델은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모형2와 모형3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모형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Delta\chi^2(9, N = 1,000) = 228.964, p < .005$),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델 또한 성립되었다(우종필, 2012).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간의 검증을 통해서 적합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유형별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평균분석은 한 집단(안정애착)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으로, 참조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평균분석은 효과크기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Cohen, 1988).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구분 변인에 대한 애착유형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p	효과크기(d)
자기효능감	0	-.259*	.001	1.151
내재화 인성문제	0	6.558*	.001	.083
외현화 인성문제	0	3.966*	.001	.059
공감능력	0	-.129*	.001	1.500

* $p < .05$

잠재평균결과, 안정애착유형은 불안정애착유형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Cohen의 효과크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잠재평균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애착유형 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 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공감과 자기효능감의 경우 척도치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인성문제의 경우 표준화된 도구이므로 척도치가 아닌 T점수로 변환된 값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Ho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정상분포곡선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대인관계적 자기효능감과 반사회성 제외)에서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에서는 많은 변인에서 유의하지 않는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측정변인간의 상관행렬표 및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공감능력	1	1	.61*	.04	-.06	-.11*	-.10*	.04	-.18*	-.10*
	2	.58*	1	.06	-.04	-.15*	-.12*	.03	-.18*	-.14*
자기	3	.34*	.22*	1	.70*	.01	.01	.06	-.03	-.02
효능감	4	.35*	.24*	.69*	1	.03	.01	.02	-.01	-.01
내재화	5	-.26*	-.11*	-.20*	-.25*	1	.75*	.03	.50*	.23*
	6	-.32*	-.15*	-.17*	-.24*	.72*	1	.07	.52*	.34*
인성문제	7	-.26*	-.17*	-.13*	-.18*	.75*	.55*	1	.10*	-.07
	8	-.31*	-.16*	-.17*	-.17*	.48*	.51*	.47*	1	.40*
외현화	9	-.30*	-.16*	-.10*	-.07	.31*	.42*	.27*	.54*	1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03	2.91	2.91	2.79	49.43	51.24	57.97	46.50	50.24	
표준편차	.50	.47	.54	.47	9.48	9.78	10.42	9.11	8.94	
왜도	-.33	-.37	-.70	-1.08	.08	.59	-.03	-.04	.30	
첨도	1.56	2.98	2.58	4.27	-.22	.09	-.14	.16	.27	

주: 1) 1: 인지적공감, 2: 정서적공감, 3: 개인적, 4: 대인관계적, 5: 불안(N1), 6: 우울(N3)

7: 사회적 위축(N5), 8: 충동성(N4), 9: 반사회성(N9)

2) 대각선 위는 불안정애착 집단이며, 대각선 아래는 안정애착 집단임.

* $p < .05$

3. 애착유형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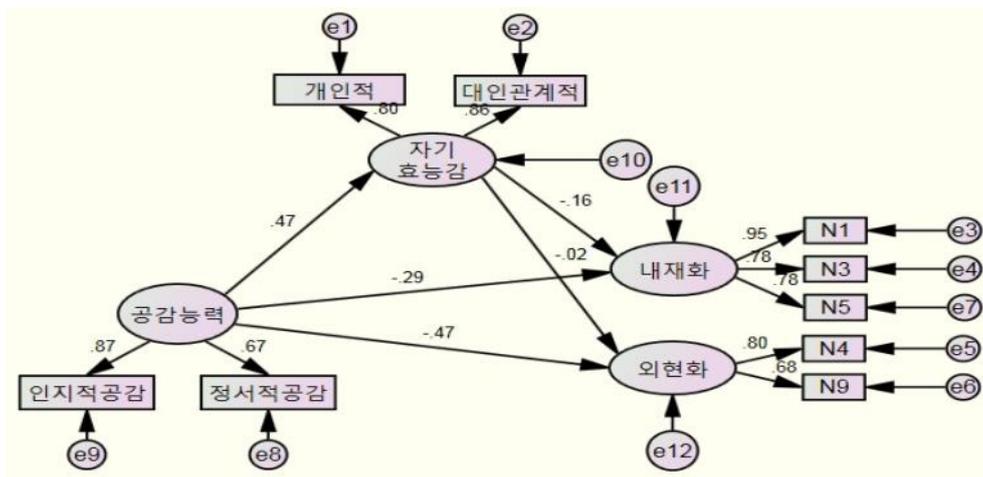
주요 변인의 측정모형 동일성이 애착유형별 집단에서 차이가 검증되었으므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애착유형 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 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44, N=1,000)=431.53, \Delta TLI=.91, RMSEA=.08$).

<표 4> 모형의 애착유형 별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 수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공감능력	→ 자기효능감	.66(.47)*	.01(.01)
공감능력	→ 내재화인성문제	-9.09(-.29)*	-4.63(-.18)*
공감능력	→ 외현화인성문제	-12.97(-.47)*	-5.25(-.30)*
자기효능감	→ 내재화인성문제	-3.63(-.16)*	.40(.02)
자기효능감	→ 외현화인성문제	-.356(-.02)	-.46(-.03)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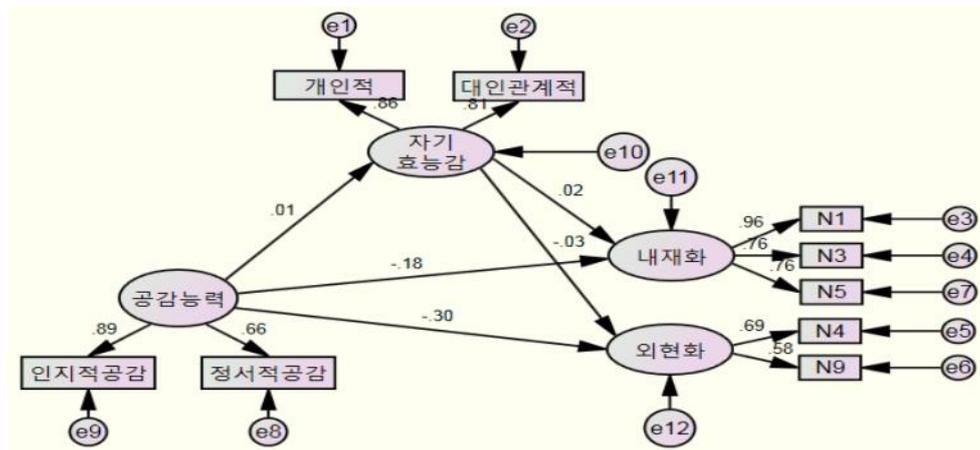
* $p < .05$



[그림 3]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안정형)

애착유형 별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공감능력이 증가하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는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나머지 다른 요인들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불안정형)

먼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의 경우 공감능력이 높아지면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할 경우 공감능력이 높아져도 자기효능감은 높아지지 않았다. 자기효능감 또한 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경우 내재화 문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내재화 문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외현화 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5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5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Delta\chi^2(5, N=1,000)=184.50, \Delta TLI=.05, RMSEA=.01$).

표 5를 통해 살펴보자면, 공감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Delta\chi^2(1, N=1,000)=41.47, p < .05$)를 비롯한 외현화 인성문제($\Delta\chi^2(1, N=1,000)=10.29, p < .05$)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기효능감이 외현화 인성문제($\Delta\chi^2(1, N=1,000)=5.16, p < .05$)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 애착유형 별 차이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공감능력	→ 자기효능감	1	41.47*	.01
공감능력	→ 내재화문제	1	3.27	.00
공감능력	→ 외현화문제	1	10.29*	.00
자기효능감	→ 내재화문제	1	.01	.00
자기효능감	→ 외현화문제	1	5.16*	.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5	184.50	.05

* $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경로들 중(표 5 참조),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표 4 참조) 최종경로는 공감능력에서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 집단(표준화 계수: $-.30, p < .05$)보다 안정애착 집단(표준화 계수: $-.47, p < .05$)에서 공감능력이 외현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안정애착이 형성되었을 때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외현화 문제를 더욱더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영유아교사의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를 결과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애착유형에 따라서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집단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대해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해 본 뒤,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가설 모형의 적합도를 애착유형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구인된 변인들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애착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집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에 따라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간 평균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 별로 평균값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안정애착유형은 자기효능감 및 공감능력에서 불안정애착유형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애착유형의 경우 안정애착에 비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경우 불안(Jakobsen, Horwood & Fergusson, 2012), 우울(유현숙·정혜정·이주연, 2012; Constantine, 2006),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Lansford, Criss, Pettit, Dodge & Bates, 2003; Martens & Palermao, 2005), 충동적 행동(Levy et al., 2006) 등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심리·정서적 부적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인다는 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각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공감능력이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고 타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높은 반면(Barrett-Lennard, 1981) 불안정애착을 형성할 경우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 친밀감 형성능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Joireman과 Lasane, Bennett, Richards와 Solaimani(2001)의 연구에서처럼, 애착유형에 따라 공감능력이 높고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전 애착유형을 먼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Wright와 Perrone-McGovern, Boo 그리고 White(2014)는 애착에 따라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민윤기·한송이·이나현·김진호·김보성(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애착유형에 따라서 내재화·외현화 인성문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변인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경우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교사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가 더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영유아교사와 관련된 변인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애착유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둘째, 애착 유형에 따라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안정애착유형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인성문제, 외현화 인성문제 간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다. 불안정 애착유형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간에는 많은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처럼, 애착유형은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도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애착유형 별 집단분류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셋째, 애착유형 별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공감능력은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명숙과 어주경(2013)은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관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Fung, Gerstein, Chan과 Engabretson(2015)은 공감능력이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공감능력은 교사의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애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은 자기효능감과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의 자기효능감 또한 내재화 인성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안정애착을 형성할 경우 그들의 공감능력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그들의 내재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은 내재화 및 외현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 간 영향력을 비롯한 자기효능감과 내재화 인성문제 간 영향력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애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 증가와 내재화 인성문제 감소의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hore(2001)은 애착은 조절변수로서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증가 혹은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낮은 내재화와 관련된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rcoran(2000)은 성인애착유형과 자기효능감 간 관계연구를 통해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재화 문제

와 자기효능감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변인 간 영향력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들 중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이 외현화 인성문제를 감소시키는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공감능력과 낮은 인성문제를 보인다는 Heim(2015)의 연구결과를 토대 논의하자면,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기 때문에(Burnette, Davis, Green & Worthington, & Bradfield, 2009), 높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인성문제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이전에 안정애착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안정애착은 외현화 인성문제를 더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연구대상자들이 1,000명에 불과하지만, 대상자들 중 50%(500명)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영유아교사의 현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선행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예비영유아교사들과 관련된 변인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평균값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영향력 차이(다집단분석) 검증을 통해서 예비영유아교사의 애착유형에 따라 변인 간 영향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애착 유형을 형성할 경우 외현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영유아교사 관련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애착유형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안정애착유형을 형성할 경우 불안정애착유형을 형성한 예비영유아교사들에 비해 더 높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외현화 문제를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 또한 교사들의 안정애착형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예비영유아교사의 인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안정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애착유형에 따른 각각의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인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공감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비영유아교사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사회에서 인성문제로 인한 영유아 학대 및 폭력행위는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영유아교사들을 비롯한 초등 및 중등, 고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비영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인성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성문제를 비롯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단연구를 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단 차이에 따른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애착유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은(2004). 성인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상담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명희·박혜경(2014).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효능감, 훈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56-186.
- 김미현·김명식(2013). 보건계열 여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9(1), 23-37.
- 김성일(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발달. **한국학술진흥재단**, 1-29.
- 김용조(2001). 초등학부모가 본 초등교사의 인성적 자질. **대구대학교 논문집**, 36, 267-295.
- 김인형(2015).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공감능력 및 회복탄력성이 폭력태도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4), 23-48.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pp. 203-229).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윤기·한송이·이나현·김진호·김보성(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내현적 자기

- 애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차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1), 163-171.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효정·김미영·정덕유(2008). 여대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5(4), 513-521.
- 성태제(2007). 알기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까지(pp. 155-158). 서울: 학지사.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안창규(2015). NEO-II 성격검사 해석지침서.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pp. 469-479).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유현숙·정혜정·이주연(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21(1), 1-15.
- 윤선아(2010). 통합 상황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신·권충훈(2010). 나딩스의 배려교육론-유아교육과 교사교육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 59-79.
- 이수현·김동민·서영석(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이순민(2014). 정신건강론(pp. 238-326). 서울: 학지사.
- 전재선(2011).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아·김봉환(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중앙일보(2015.12.14). 장난친다 탁자 밀어 4살 원아 앞니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입건. <http://news.joins.com/article/19245341>
- 차지연(2013). 보육교사의 감정표현불능증, 소진, 성인애착이 유아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민·박재국·김혜리(2013). 건강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237-255.
- 한명숙(2015).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인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105-123.

- 홍명숙·어주경(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Aiken, L. S., Stein, J. A., & Bentler, P. M. (1994).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of clinical subpopulation differences and comparative treatment outcomes: Characterizing the daily lives of drug addi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488-49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Inc.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kowitz, M. W., & Grych, J. H. (1998). Fostering goodness: Teaching parents to facilitate children'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3), 371-391.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mailes, E. M. (1999). Childhood abuse and neglect: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2), 1490-149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rnette, J. L., Davis, D. E., Green, J. D., Worthington, E. L., & Bradfield, E. (2009). Insecure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rumination, empathy,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3), 276-280.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le, D. A., Maxwell, S. E., Arvey, R., & Salsa, E. (1993). Multivariate group

- comparisons of variable systems: MAN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 174–184.
- Constantine, M. G. (2006). Perceived family conflict,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frican American female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4), 697–709.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74–483.
- Corcoran, K. O. C.,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 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73–48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I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13.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Fung, A. L., Gerstein, L. H., Chan, Y., & Engebretson, J. (2015). Relationship of aggression to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empathy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3), 821–831.
- Gratz, K. L., Kiel, E. J., Litzman, R. D., Elkin, T. D., Moore, S. A., & Tull, M. T. (2014). Maternal borderline personality pathology and infant emotion regulation: Examining the influence of maternal emotion-related difficulties and infan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8*(1), 52–69.
- Heim, C. (201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Psychopathic Traits: A Relationship Mediated by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Master of Scienc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iken.
- Hong, S., Malik, M. I.,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log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ornblow, A. R., Kidson, M. A., & Ironside, W. (1988). Empathic processes: perception by medical students of patients' anxiety and depression. *Medical education, 22*(1), 15-18.
- Jakobsen, I. S., Horwood, L. J., & Fergusson, D. M. (2012). Childhood anxiety/withdrawal, adolescent parent-child attachment and later risk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303-310.
- Joireman, J. A., Lasane, T. P., Bennett, J., Richards, D., & Solaimani, S. (2001). Integrating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ithin the extended norm activation model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133-155.
- Joreskog, K. G., & So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2nd Edition). Chicago: SPSS.
- Kokkinos, C. M., & Kipritsi, 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empathy among pre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5*(1), 41-58.
- Kuo, J. R., Khoury, J. E., Metcalfe, R., Fitzpatrick, S., & Goodwill,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role of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39*, 147-155.
- Lansford, J. E., Criss, M. M.,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2003). Friendship quality, peer group affiliation, and peer antisocial behavior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2), 161-184.
- Lazarus, S. A., Cheavens, J. S., Festa, F., & Rosenthal, M. Z. (2014).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of behavioral and laboratory-based assessm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3), 193-205.
- Lee, K. M., Han, S. S., & Choi, Y. J. (2008). Early Development and Insu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92-206.
- Lee, S. A. (2009). Does empath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5), 429-433.
- Levy, K. N., Clarkin, J. F., Yeomans, F. E., Scott, L. N., Wasserman, R. H., & Kernberg, O. F. (2006). The mechanisms of change in the treatment of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ith transference focused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81-501.
- MacCallum, R. C., Roznowski, M., & Reith, J. (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 1-32.
- Maciejewski, P. K., Prigerson, H. G., & Mazure, C. M. (2000). Self-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ased on history of prior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4), 373-378.
- Martens, W. H., & Palermo, G. B. (2005). Loneliness and associated violent antisocial behavior: analysis of the case reports of Jeffrey Dahmer and Dennis Nilse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9(3), 298-307.
- Meredith, P., Strong, J., & Feeney, J. A. (2006).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pain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pain intensity and disability. *Pain*, 123(1), 146-154.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strategic variations in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20-435.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17-826.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Minor, L. C., Onwuegbuzie, A. J., Witcher, A. E., & James, T. L. (2002).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and their perceptions of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6(2), 116-127.
- Paulhus, D. (1983).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253-1265.
-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2), 111-117.
- Prehn-Kristensen, A., Wiesner, C., Bergmann, T. O., Wolff, S., Jansen, O., & Mehdorn, H. M., et al. (2009). Induction of empathy by the smell of anxiety. *Plos One*, 4(6), 59-87.

- Reed, P. G. (1991). Self-transcendence and mental health in oldest-old adults. *Nursing Research, 40*(1), 5-11.
- Riggs, S. A., Paulson, A., Tunnell, E., Sahl, G., Atkison, H., & Ross, C. A. (2007). Attachment,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among adult inpatients: Self-reported romantic attachment style versus Adult Attachment Interview states of min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01), 263-291.
- Schore, A. N. (2001). Effects of a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7-66.
- Tucker, L. R., & Lewis, C.(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iltgen, A., Arbona, C., Frankel, L., & Frueh, B. C. (2015). Interpersonal trauma, attachment insecurity and anxiety in an inpatient psychiatric popul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5*, 82-87.
- Wright, A. G., Thomas, K. M., Hopwood, C. J., Markon, K. E., Pincus, A. L., & Krueger, R. F. (2012).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DSM-5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4), 951-957.
- Wright, S. L., Perrone McGovern, K. M., Boo, J. N., & White, A. V. (2014). Influential Factors in Academic and Career Self Efficacy: Attachment, Supports, an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1), 36-46.

·논문접수 4월 1일 / 수정본 접수 5월 23일 / 게재 승인 6월 14일

·교신저자: 조민규, 경북대학교 아동학과 외래교수, 이메일 familystark@naver.com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of Attachment Type among Empathy Competence, Self-Efficacy and Personality Problem for Preservice Teachers

Choonkyung Kim and Minkyu Cho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what impact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competence and self-efficacy had on internalizing/externalizing personality problem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from attachment type. For this purpose, the respondents were 1,000 college students(three and four years) currently enrolled i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tudies, this study collected data using tools for attachment styles, empathy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ernal/ externalizing personality problem.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data, using AMOS 18.0, it verified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 significance level of .05. Analysis, First, empathy competence and self-efficacy, internal/externalizing personality proble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attachment. Second, the effect of empathy competence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attachment. The empathy competence of secure attachment pre-teacher was a stronger impact on externalized personality problem as compared with that of insecure attachment pre-teacher.

Key words: attachment Type, empathy competence, self-efficacy, personality problem, multiple group analysis

